13강. 해탈과 그것으로 가는 방법

1. 모든 것은 의식의 표상일 뿐이다!

◇ 의식이 모든 것이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 한, 두 층위에서 일어나는 집착은 작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. 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26

-바수반두는 고통에 대한 기원을 외부가 아니라 마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
-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강렬한 소유욕으로부터 기인하기 마련이다.
-소유욕이 가능하기 위해서 소유하려는 대상과 아울러 주체가 구분되어야만 한다.

-“두 층위에서 일어나는 집착”이란 ‘주체에 대한 집착[我執]’과 ‘대상에 대한 집착[法執]’을 의미한다.

-바수반두에 따르면 여기서 집착의 표적인 ‘나’나 ‘대상’이 모두 알라야식에 의해 허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,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만 있다면,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생기는 불만족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. 모든 것이 알라야식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자각이 바로 ‘유식(唯識, vijñapti-mātra)’에 대한 자각이다. 바수반두가 체계화한 불교를 ‘유식불교’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.

◇ 만일 자신 앞에 무엇인가를 둔다면, 모든 것이 단지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. 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27

2. 유식이란 깨달음의 역설!

-모든 것이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, 이것이 바로 바수반두가 말한 깨달음의 내용이다.
-바수반두는 “모든 것이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” 생각 자체도 극복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.

3. 깨달음으로 가는 길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◇ 그렇지만 의식이 더 이상 대상을 지각하지 않을 때,
그 경우 의식은 단지 의식의 표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에 머물게 될 것이다.
왜냐하면 파악되어지는 대상이 없다면,
그것을 파악하는 주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.
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28

-바수반두에 따르면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은 어느 경우에든 철저하게 제거되어야만 한다. 그것이 바로 깨달음, 즉 해탈의 상태이기 때문이다.

-바수반두는 "파악되어지는 대상이 없다면 그것을 파악하는 주체도 있을 수 없다"고 말했다.

◇ 아는 마음도 그리고 알려지는 대상도 없을 때,
이런 상태가 탈속적인 지혜의 상태이다.
이 상태는 두 층위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거함으로써
발생하는 '바탕의 변화(Āśraya-paravṛtti)'를 뒤따르는 것이다.
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29

-'바탕의 변화'는 산스크리트어로 'Āśraya-paravṛtti'의 번역어인데, 이 개념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'전의(轉依)'라고 번역된다. 다시 말해 '의지하는 것을 바꾼다'는 의미이다.

-'바탕의 변화' 혹은 '전의'는 알라야식으로 상징되는 '의식(vijñāna)'의 상태로부터 '지혜(prajñā)'나 '(깨달은 자의) 앎(jñāna)'으로의 상태로 마음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개념이다. 결국 이분법이 제거되면 우리 마음의 바탕, 즉 알라야식이 변화된다는 것이다.

-대원경지는 글자 그대로 위대하고[大] 완전한[圓] 거울과 같은 앎이나 지혜를 의미한다.

-대원경지는 타자나 사태를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마음에는 배제 의식이나 편견, 혹은 기대나 기억 의식 등 일상적 의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평범한 사람	깨달은 사람
알라야식 (阿賴耶識 , ālaya-vijñāna)	대원경지(大圓鏡智, mahādarśa-jñāna)
마나스(末那識, manas)	평등성지(平等性智, samatā-jñāna)
의식[意識, mano-vijñāna]	묘관찰지 (妙觀察智, pratyavekṣaṇa-jñāna)
‘눈의 의식 [眼識, cakṣur-vijñāna]’ ‘귀의 의식 [耳識, śrotra-vijñāna]’ ‘코의 의식 [鼻識, ghrāṇa-vijñāna]’ ‘혀의 의식 [舌識, jihvā-vijñāna]’ ‘촉감의 의식 [身識, kāya-vijñāna]’	성소작지 (成所作智, kṛtyānuṣṭhāna-jñāna)

-알라야식이 대원경지로 대체되었다면, 자기의식으로 기능하는 마나스(末那識, manas)는 평등성지(平等性智, samatā-jñāna)로 대체된다.

-평등성지는 편협한 자기의식을 버리고 자아와 타자를 똑같이 보는 지혜를 이야기한다.

-감각적 의식의 데이터나 개념과 관계하는 의식[意識, mano-vijñāna]은 묘관찰지(妙觀察智, pratyavekṣaṇa-jñāna)로 대체된다.

-묘관찰지는 사물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그대로 식별되는 지혜를 말한다.

-‘눈의 의식[眼識, cakṣur-vijñāna]’, ‘귀의 의식[耳識, śrotra-vijñāna]’, ‘코의 의식[鼻識, ghrāṇa-vijñāna]’, ‘혀의 의식[舌識, jihvā-vijñāna]’, ‘촉감의 의식[身識, kāya-vijñāna]’ 등 다섯 가지 감각 의식은 성소작지(成所作智, kṛtyānuṣṭhāna-jñāna)로 대체된다. 성소작지는 감각 의식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지혜를 말한다.

4. 깨달음의 상태는 이해 가능한 것일까?

◇ 이 상태는 오염되지 않았으며,
이해될 수 없고, 상서로우며,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.
기쁨으로 충만한 해방된 몸의 상태는
또한 위대한 성인의 진리의 몸이라고 불린다.
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30

-이분법이 제거되면 바탕의 변화가 이루어진다. 다시 말해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면, 우리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의식을 나타내는 'vijñāna'라는 개념과 지혜를 나타내는 'jñāna'라는 개념 사이의 차이이다.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'vi'라는 접두사이다. 흥미롭게도 이 접두사는 '둘', 혹은 '짝'을 의미한다. 이로부터 우리는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이 극복되었을 때에만, 우리의 일상적 의식이 깨달은 자의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.

-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의 제일 마지막 게송은 깨달은 자, 즉 '거울과 같은 마음'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. 허구적 이분법,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해방된 자이며, 동시에 그로부터 최상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.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몸(kāya)라는 개념이다. 이것은 깨달은 자가 주체와 대상이란 허구적 이분법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, 그가 개체적 실존 자체, 즉 육체성마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